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thnic look Expressed in Mordern Fashion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정연자

Dept. of Apparel Design. College of Art. Kun Kuk univ.

Lecture: Jung, Yun Ja

〈목 차〉

- | | |
|-------------------------|-------------------------------|
| I. 서론 |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 |
| Ⅱ. 민속풍(Ethnic look)의 특성 | Ⅳ.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As a result of making an inquiry into the ethnic look of each region appearing in present-day fashion by Asia, America and Oceania, Africa and Europe as mentioned above, its characteristic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Asian ethnic look consists of Indian, Chinese and Japanese looks as mainstream.

In terms of form, the draped form constituted its mainstream, and both the draped form and the tunic form are appearing Simultaneously in the Chinese look.

And in respect to color the Indian look is using luxurious primary colors red, blue, yellow and green and other regions are making overall use of natural colors.

With respect to ornament various kinds of ornaments is utilized in Indian's Sari and turban, Chines's Coolie hat, straw hat and embroidery, knotted button, and bead ornament, and Japan's Obi and Obijime, etc.

Secondly, in America and Oceania, costurme representing the Indian look in North America and the picture of Western pioneer, and the Peruvian, Mexican and chilean ethnic looks in South America were expressing much.

Here, the form consistied a draped form as its main strem, such colors as yellow, purple, grey, etc were much utilized, and the material of costume comprised knits, cotton and the like.

And the ornament consisted of hats, tassel ornaments, bead ornaments, metal chain

belt, long braided hair, etc.

Thirdly, the African ethnic look had an exposing form and a draped form, and such colors as black, white, yellow, brown, etc were used as the fashion color. Ornaments such as precious stone, bead ornaments, animal bones, straw metal ornament, etc were used as fashion decorations.

Fourthly, Russia's Cossack look, Bulgaria's Bavshika look, Spain's ethnic look came to the fore as the European look. Both the draped form and the tunic form were used simultaneously as fashion form. And grey, brown, purple, etc were much used as fashion color in the European look.

Such ornaments as Cossack, Bavshika, boots, tassel ornaments were much used and Paisley pattern also was used.

I. 서 론

21세기를 앞두고 펼쳐지는 패션테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속풍(ethnic look)의 유행경향은 자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화를 재평가 하려는 것으로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은 후기 산업시대, 정보시대에 적합한 패션의 주제로서 서양복식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가 서양복식의 인위적이며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때묻지 않은 원시성의 추구에 대한 향수¹⁾라고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풍은 1980년대에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확립된 양식들이 붕괴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성, 다원성, 다양성의 성격을 가지며 과거의 형식을 소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다른시대, 다른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는 방식이 두드러지며 모더니즘적 문화와 사고방식이 세워놓은 엄격한 지배의 틀을 거부하는데 특징이 있다²⁾고 하겠다.

복식에 나타난 민속풍 역시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원화, 절충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3국의 복식양식을 현대풍에 재현시킴으로

서 하나의 절충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절충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민속풍의 경향을 고찰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풍의 경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각 지역의 민속의상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복식과 문화, 민속의상의 개념, 민속풍의 특징에 대하여 문헌적, 사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민속풍은 1989~1994년 파리 런네프레타 포르테를 중심으로 gap,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preview 잡지에 나타난 것을 분석하였으며, 민속풍의 선정에 있어서는 의류학 전공자 2인이 민속풍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II. 민속풍의 특성

1. 복식과 문화

문화는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E.B. Tylor³⁾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라고 규정하면서 문화는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Leslie A. White는 Tylor의 정의를 더욱 구체화시켜 '인간은 상징(symboling)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임에 유의하

여 이것이 문화의 기초라고 파악하였다.⁶⁾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문화는 공유되고 학습되며 축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항상 변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⁸⁾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는 서로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문화의 변화 형태는 진화, 전파, 문화변용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문화전파는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요소나 특성이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파는 사회문화적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문화변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집단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양쪽 집단이 문화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보이는 현상⁹⁾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변용은 때에 따라서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으며 전파되어온 모든 요소들 중에서 수용하는 측의 생활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 인간 내면에는 새롭게 등장한 타문화의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표현으로써 선택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⁷⁾

복식은 문화체계의 일부로서 문화전파 현상을 나타내며 문화는 문화력의 크기에 따라 모문화(dominant culture), 하위문화(subordinate culture)로 나누어지며 하위문화는 모문화에 대하여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 생활양식의 규범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많은 갈등과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전파는 테디 보이, 히피, 펑크에서 볼 수 있다.⁸⁾ 복식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화의 전파는 서양(미국, 유럽등)과 비서양(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간의 복식 특성과 요소의 전파에서 볼 수 있다.⁹⁾

Jean Hamilton¹⁰⁾은 복식이란 문화의 하위체계(cultured subsystem)로서 특정한 문화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독특하지만 문화를 표현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인자¹¹⁾는 의복 형태의 보편성을 관찰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인간행동의 순리를 알 수 있고 미래의 의복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의복 형태의 다양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관습이나 습관에서 나온 문화간의 양상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전파 현상에 의한 타문화와의 변용이 복식에서는 제3국의 복식 양식을 표현하는 민족풍(Ethnic look)의 경향으로 나

타나고 있다.

2. 민족의상의 개념

민족학은 언어, 종교, 역사, 운명을 공유하는 인종의 사회적인 협동집단에 관한 학문이고 민족학은 일반인의 사이에 전승하는 습속(習俗)과 생활문화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민족학은 세계 각 지방에 광범한 사회집단을 만들고 있는 인종, 국가 등의 광역 협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민족학은 그저 문화 담당자로서의 지방적인 일반인의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¹²⁾ 즉 민족은 인종에 가까운 것이고 민족은 인종을 초월한 지역사회의 습속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족복이라는 것을 민족복이라는 말로도 잘 사용하는데 민족이라는 것은 특정의 한정되었던 지역내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왔던 생활문화의 의미이기 때문에 민족복과 민족복은 똑같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지방의 민족복이 그 민족 전체의 민족복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 소수민족 집단에서는 민족복과 민족복이 같은 경우도 있다.¹³⁾ 또한, 민족복과 민족복이 잘 혼동되는 것처럼 역사복과 민족복이 자주 혼동된다. 역사복이라고 말하면 그 나라(지역)에 존재한 역사적 복장으로 역사적 기록에 의해 이루어진 복장이며 복장사가 대상하는 분야의 전부이다. 그와 같은 역사복도 민족복(민속복)으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일반적인 의생활로부터 사라진 옷이다. 즉 역사복은 일종의 그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과거의 존재가 증명되면 그것은 훌륭한 역사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복은 일정의 역사적 경과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상생활 중에 생활의복으로서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¹⁴⁾

민족의상에 대한 기능주의자들의 견해는 민족의상은 첫째, 그 민족집단의 독자성을 상징하고 둘째, 개인과 그 집단과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해주는 옷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상은 특정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담고 있는 의복으로 이 민족의상에는 그 지역 고유의 풍속, 풍습, 도양, 소재, 기술 등이 나타

나 있다. 이러한 민속의상은 민속집단의 독자성을 의
계에 나타내주는 뼈지이며, 민속의상에 대한 주의깊
은 고찰은 매우 가치있는 일로써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¹⁵⁾ 현대 의복디자인
에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
한 민속의상들이 21세기를 앞둔 현대패션에 새로운
패션테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3. 민속풍(Ethnic look)의 특징

세계 각국의 민속복식은 복식디자인에 영감을 주
는 하나의 풍요한 자원이다. 세계의 국제 정세에 따
라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의 민속복식이 세
계 유행에 영향을 미쳤던 예는 과거에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나면
서 아프리카의 복식이 유행하였던 예나 월남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중공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
지면서 동남아에서 나온 볼레로(boleros)와 같은 의
복이 유행했던 것처럼 의복의 형태중에는 민속의상
에서 출발한 것이 많다.¹⁶⁾

민속풍(Ethnic look)의 등장은 1906년 Paul Poiret
가 기모노 소매의 코트와 'The Arabian Night'를 재
현시킨 듯한 터번과 하렘팬츠를 선보여 오리엔탈 무
드를 발표¹⁷⁾하고, 1967년 Yv. st. Laurent이 아프리카
드레스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민속적인 복식이 오
트 쿠티르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¹⁸⁾
또한 1970년 Kenzo가 낭만적인 분위기의 일본, 중
국, 러시아의 민속적 요소를 과감하게 발표하면서 민
속풍은 부각되기 시작했다. 1980년 후반부터 현대 패
션에 다양한 종류로 등장한 민속적 경향은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현대인들의 공감대가 패션테마로 표현된
것이며 하나의 생태학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류의 근원을 찾는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각 문
화권마다 다른 민속의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패션테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민속적 경향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지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표현해 주고 있다.

민속풍(Ethnic look)은 민속의상 그 자체와 염색,
직물, 자수등에서 힌트를 얻어 소박한 느낌을 강조

한 디자인을 말하며 토속적이고 비교적 원형이 간직
된 상태의 의복을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의미가 가
미된 비 기독교적인 의복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중
근동의 종교적 의상, 잉카의 기하학적 문양, 인도네
시아의 바틱, 인도의 사리둥이 에스닉(Ethnic)의 대
표적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¹⁹⁾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

각 문화권마다 민속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구 패션은 모더니즘적 경향의 단순화, 대중화와 더
불어 대중매체에 의하여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
이다.

민속풍이 현대패션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역
사주의와 현대주의를 같이 표현한 것으로 포스트 모
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은 '반 역사적인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역사의 재현이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의 모든 양식들
을 임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역사를 자의적 시선으
로 보는 역사성'을 말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경향을
던 민속풍(Ethnic look) 역시 과거의 민속의상을 현
대패션에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를 통
해 현대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9-1994년까지 파리, 런던, 프레
타 포르테 콜렉션'에 나타난 민속풍의 형태미를 살
펴보았다. 복식의 형태미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복
식의 기능성에 의해 복식형태를 분류한 Mutzel의²¹⁾
카프탄형(caftan, kaftan), 드레이퍼리형(drapery), 판
초형(pancho, poncho), 튜닉형(tunic)으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1989-1994년 파리/런던 프레타 포르테 콜렉션에 표
현된 민속풍의 경향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는데 한
디자이너의 부대에서 민속풍의 표현은 10%~30%정
도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민속풍을 선정하는데 있어
10%를 다룬 디자이너도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이와같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민속풍을 현대패션에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패션에 표현된 민속풍
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89~1994 민속풍의 경향

년 도 \ 디자이너	총 디자이너(N)	민속풍을 표현한 디자이너(N)	백분율(%)
1989	51	30	59
1990	65	24	38
1991	65	20	31
1992	63	22	35
1993	65	24	38
1994	65	22	35
합 계	374	142	37

1. 아시아

20세기에 들어와서 오리엔탈리즘은 사회·문화·예술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는 Dr. Mardus가 번역한 『The Arabian Night』가 유럽지역에 널리 퍼져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에 대한 향수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²²⁾

아시아의 민속풍으로는 인도, 일본, 중국, 중동, 베트남 등의 민속의상을 응용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 인도풍

인도는 열대 및 아열대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속하고 인종·종교를 비롯한 사회적 구성이 지극히 복잡하며 의복 역시 전체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자의 전통의복중 사리(Sari)는 인도인의 자랑이며 민속의상으로서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²³⁾ 이 사리는 힌두교도의 의상이고 한 장의 천을 몸에 둘러 입으며 착장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를 낼 수 있다. 기본착장법은 우측 허리부분을 감아 앞 중앙보다 약간 우측에 몇개의 주름을 잡은다음 나머지 천을 왼쪽어깨에 걸쳐 등쪽으로 50~70 떨어뜨리는데 신전에서 빌때나 윗사람을 만날때, 결혼식등에는 머리와 얼굴까지 가리고, 일하는 부인들도 직사광선과 먼지를 피하기 위해 머리에서부터 둘러 쓰는 경우도 있다.²⁴⁾

사리와 터번을 이용한 장식이 많이 표현되었고 흰색과 화려한 색상의 무늬가 있는 직물이나 금박이



〈그림 1〉 Enrico Coveriel 인도풍(사리) COLLECTION, 1991, S/S p.132.



〈그림 2〉 Christian Dior 인도풍(사리) COLLECTION, 1991, S/S p.53.

많이 들어간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화려한 보석 등을 의상의 부분 소개로 장식하고 있었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Kenzo, Kimijima, Enrico Coveri, Katharine Hamett, Christian Lacroix, Hiroko Koshino, Daniel Hechter, Rome Gigli, Grès, Yuki Torii, Hanae Mori, Balenciaga, Patrick Kelly 등이 있다.²⁵⁾

사리를 이용한 작품으로 〈그림 1〉은 금색의 부드

려운 천에 보석으로 장식한 인도풍 드레스이며 <그림 2>는 금박수가 놓여 진 사리와 원피스를 이용한 작품이다. 주로 단순하고 슬림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2) 중국풍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민족마다 의복과 습관, 종교, 지형과 기후조건 등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의복과 장신구 역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의복은 마꾸마, 디엔아옴, 치파오 등이며²⁶⁾ 그 중에서 치파오가 민족의상으로서 현대패션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다. 치파오는 타이트한 형태의 드레스로 허벅지까지 슬릿되었고 목선에서 어깨, 거드랑이로 트임이 있어 매듭단추를 장식하였으며 만더린 칼라를 하고 있다. <그림 3>은 치파오의 응용으로 헝겊까지 사이드슬릿 되었고 목선을 단순하게 칼라없이 처리하였다. 주황색에 금속문양장식은 더욱 중국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치파오 외에도 중국풍



<그림 3> CHLOE, 중국풍(치파오) Gap. S/S 89, Paris 25.



<그림 4> Alberta ferretei 중국풍(만더린칼라, 매듭단추) COLLEZIONI 1993-94, A/W No. 34 p.42.

에 있어서 많이 내두되고 있는 의복은 밀짚, 대나무 등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코리 모자(Coolie hat)인데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노동복²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중국복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만더린 칼라와 매듭단추를 이용한 작품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의 상의에 빨간 매듭단추는 단순하고 편안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풍은 대체적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의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Guy Paulin, Hiroko Koshino, Kenzo Jean-Paul Gaultier, Karl Lagerfeld, Grès, Matsuda Yuki Torii, Jean-Louis scherrer, Damel Hechter, Zucca, Betty Jackson, Christian Lacroix, Balenciaga, Hiroco Koshino 등이 있다.²⁸⁾

3) 일본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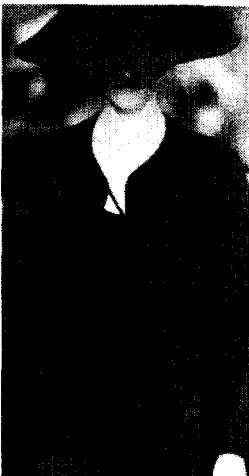
일본풍은 1960년 하비에 모리에가 일본패션을 구미에 소개한 것과 1970년 Kenzo가 기모노의 오비와 오비지메를 응용한 작품을 파리 컬렉션에서 선보임²⁹⁾

으로 해서 일본풍이 서양패션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Issey Miyake와 Yohji Yamamoto, Rei Kawakubo 등이 일본풍을 유행시켰다.

일본의 일반 남자복장은 목면을 사용한 길이가 짧은 속옷, 속바지, 버선, 각반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모노나, 하오리(羽織)는 이들 의복 위에 입는다. 일본의 잘 알려진 겉옷인 기모노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소매가 달린 직각의 형태이며 오비(帶)와 오비



〈그림 5〉 Kimijima 일본풍(형태, 모자) COLLECTION, 1991, S/S p.61.



〈그림 6〉 Yohji Yamamoto 일본풍(노동복형태, 모자) COLLECTION, 1991, S/S Paris p.82.

지메(帶締め)가 특징이다.³⁰⁾

현대 패션에 일본의 민속풍은 주로 기모노, 무장(武裝), 가사(架装), 노동복의 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드레이퍼리 형태로, 색상은 중간톤의 초록, 갈색, 회색 등을 사용하였고 천연소재인 마를 이용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5〉는 밀짚모자와 마를 이용한 의상작품으로 남성복을 응용한 작품이며 〈그림 6〉는 일본 농촌 여인의 작업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으로 검은색에 단순하고 편안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Issey Miyake, Kansai Yamamoto, Takada Kenzo, Yohji Yamamoto, Romlo Ggli, Picka, Lolita Lempicka 등이 있다.³¹⁾

2.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북미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의상특징은 가죽으로 만든 원시적 복장인 전통적인 로인 클로스(loincloth)와 짧은 상의 그리고 각반과 술장식, 구슬장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 남미인들은 깃털장식이 대표적이며 대체적으로 예술적 취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³²⁾

북미의 인디언풍과 서부개척자 모습을 나타낸 의상들, 남미의 페루, 멕시코, 칠레의 민속풍을 재현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아메리카풍에 있어서는 Yuki Torii, Sarli, Gucci, Valentino, Yv. St. Laurent, Emanuel Ungaro, Hermès, Enrico covern, Hiroko Koshino, Ghost, Guy Paulin, Christian Lacroix 등이고 오세아이나풍에 있어서는 Kari Lagerfeld, Katharine Hamnett, Jin Abe, Arabella Pollen, Hanae Mori³³⁾ 등이다. 형태면에 있어서는 노출 형태와 드레이프드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색상은 전반적으로 네추럴 칼라였으며 소재에 있어서는 가죽, 니트, 모 등 다양했다. 장식으로는 모자와 벨트, 목걸이 등을 이용하였다.

1) 멕시코

멕시코 의복형태의 근원을 더듬어보면, 나우아족 남자의 틸마트리(tilamtlil)라고 하는 어깨에 걸치는



〈그림 7〉 Sarli 멕시코풍(형태. 모자) COLLEZIONI, 1993, S/S p.202.

망토가 오늘의 긴 판초(huipil)로 발달하였다. 또 마스티크족 여자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정방형의 면직물에 머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 케스케미틀(queschquemitl: 짧은 판초)이 있는데 처음에는 상반신의 흉부를 가리는데 사용되던 것이다.³⁶⁾ 이러한 판초와 모자의 변형이 현대패션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현대패션에 표현된 멕시코풍으로 커다란 밑襟모자와 브라우스 위에 술장식으로 된 탑과 코트를 걸치고 있으며, 황색의 바지와 자켓은 자연의 들판을 연상시켜 주는 듯 하며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현대인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칠레

칠레의 대표적인 민족의상은 판초이며 판초는 남녀공동의 민족의상으로 옛날 고대 로마인들이 입었던 관의를 연상시키는 소매없는 달마터카의 일종이다. 여성들은 안데스 산지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의 라마나 영양의 털을 사용해서 한장의 판초를 2년에 걸쳐 짜는데 색은 터키 블루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³⁷⁾ 〈그림 8〉은 칠레의 판초를 이용한 작품으로 판초 끝에 술장식이 되어 있고 색역시 블루가 주조 색을 이루는 체크무늬를 이루고 있다.



〈그림 8〉 Gucci 칠레풍(판초) COLLEZIONI, 1993-94, A/W p.56.

3) 북미 인디언

북미 인디언은 일찌기 풍부한 자연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과 장신구는 자연계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을 잡아서 만들었다. 따라서 가죽으로 만든 의복이 많으며 깃털장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³⁸⁾ 〈그림 9〉는 북미의 서부개척사 카우보이를 연상케하는 작품으로 브라우스에는 지구가 프린트되어 있고 바지에는 술장식이 되어있다. 이는 지구가 가까운 이웃촌임을 표현해주는 느낌으로 지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전달해 주고 있다. 〈그림 10〉은 인디언풍으로 모자와 땅아 늘어



〈그림 9〉 Hermès 북미인디언풍(바지형태, 술장식) COLLEZIONI, 1992, S/S.



〈그림 10〉 CORTNNE COBSON, 인디언풍(벨트, 모자, 머리) COLLEZIONI, 1993, A/W p.289.

뜨린 긴머리, 허리에 쇠사슬 느낌의 늘어뜨린 벨트는 야만적인 느낌이지만 에콜로지를 인식할 때 고귀한 야만처럼 느껴지는 작품으로 원시에 대한 동경을 작품속에 담고 있다. 브라운의 니트 드레스와 밑에 땅아내린 머리같은 모양의 술장식은 전체적인 이미지와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4) 타이티섬

타이티섬은 화가 고갱이 자연을 찾아 떠났던 곳이며 고갱이 만년에 살며 그림으로 남겼던 타이티섬의 명화 중에는 파레오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1〉 Valentino 오세아니아 타이티섬(파레오) COLLEZIONI, 1990, S/S London 8.



〈그림 12〉 Arabella Pollen 오세아니아 타이티섬(파레오) COLLECTION, 1990, S/S London 8.

타이티 여성들은 빨간색 프린트의 폭이 넓은 길이 1.5m 남짓의 면직을 등에서 가슴으로 돌려 위의 양쪽끝을 목 앞에서 한번 비틀어 목뒤로 돌려 묶는 식으로 착용하여 입는다.³⁷⁾ 〈그림 11〉과 〈그림 12〉은 오세아니아에 있는 타이티섬의 파레오를 현대패션에 응용한 작품이다. 파레오 형태의 의복은 현대패션에 많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회귀 욕구가 의복에 나타난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3. 아프리카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지적인 것의 비대와 문화적 활동에 만족한 예술가나 시민들은 원시의 문화와 접촉관계를 찾으려 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탐구는 니그로의 조각에 몰두되어지며 본래 소박함과 진솔함, 때문지 않은 창의력을 지닌 것들에 대해 적용되었던 ‘원시적(primitive)’이란 용어가 1906년 이후, 아프리카 토인들의 작품에 대해 쓰일 정도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바로 상실해 버릴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표현성, 명쾌한 구성, 솔직 단순한 기법 등을 지니고 있다.³⁸⁾

아프리카풍이 서양패션에 나타난 것은 1967년 Yv. St. Laurent이 구슬로 장식한 아프리카 드레스를 기점으로³⁹⁾ 민속적이며 토속적인 복식이 오프 쿠뛰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1968년에 미국에서는 화

려한 색상의 아프리카풍⁴⁰⁾이 나타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20세기 현대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인들이 산업발달에 따른 기계화와 도시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연회귀현상인 인간본연의 향수라고 할 수 있으며, 문명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의 동경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Yv. St. Laurent, Jean Louis Scherrer, Gean Paul Gaultier, Kenzo, Chasntal Thornass, Guy Paulin, Daniel Hechter Zucca, Christian Lacroix, Hiroko Kossino, Renato Balestra⁴¹⁾ 등이며 인디안 원주민들을 연상케 하는 토속적 이미지의 작품들로 트레이퍼리 형태, 노출형태이며 색상은 주로 자연색인 황갈색이 주조색이었고 장식으로는 매듭, 술, 금속, 상아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13> 역시 아프리카의 민속적인 스타일로 상아로 만든 목걸이와 장방형의 천을 둘러입은 드레스, 보자기로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끼게 해주며 원초적인 생명성을 표출해주고 있다. <그림 14>은 구슬장식으로 된 탑과 헐렁한 바지, 그리고 허리띠를 하고 있고, 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는 화

려한 색상의 의복이다. <그림 15>는 터번과 탑, 요의를 입고 있으며 금속으로 된 탑과 팔찌, 목걸이는 더욱 아프리카적인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다.



<그림 14> Yv. St Laurent의 아프리카풍(구슬장식) COLLECTION, 1991, S/S p.109.



<그림 13> Yorke & Cole 아프리카(고유형태, 목걸이) COLLECTION, 1990, S/S Paris 48.



<그림 15> Jean-Louis Scherrer 아프리카풍(터번, 요의) COLLECTION, 1992, S/S Paris 41.

4. 유럽

유럽대륙 전역에 걸친 민속의상의 발전은 거의 완전하게 일정한 국경을 따라서 스타일에 의해 혹은 도회화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구분은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 실체에 의한 구분이다.⁴²⁾

80년대 세계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중의 하나가 소련을 위시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 동부유럽을 차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물결이다.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유럽 여러 나라의 민속의상의 특징들을 테마로 한 컬렉션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민속풍에 대한 작품들이 많았다. 러시아의 민속풍은 주로 모피나 모를 소재로 한 드레이프드형태의 단순한 형이었으며 색상은 회색이나 브라운의 중간색상이었고 대체적으로 기능적인 면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러시아 문화는 서구유럽과 지중해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아시아,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각각 서구의 클래식한 문화와 중동을 포함한 동양의 고대문화를 모두 받아들여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였다.⁴³⁾ 이러한 러시아풍이 현대패션에 더욱 부각되는 것은 러시아의 개혁정책으로 인한 서구시장과의 개방에서 오는 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경제유입과 문화유입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러시아 외에도 불가리아, 스코틀랜드, 스페인의 민속의상들도 대두되고 있었다. 유럽풍의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Chantal Thomass, Kenzo, Hermes, Kimijima, Nich Coleman, Soma Rykiel 등이다.⁴⁴⁾

<그림 16>은 코사크모자를 이용한 작품이고, <그림 17>은 불가리아풍으로 스카프와 오버스커트를 입었으며 페이스리 문양이 들어가 있다. <그림 18>는 스페인풍이며 <그림 19>은 스코틀랜드 풍의 작품으로 체크치마와 깃털이 장식된 모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검은색 자켓은 네크, 여민부분, 커프스와 단추 등은 금색을 이용하였다.



<그림 16> Kimijima, 러시아풍(코사크모자, 모피점퍼) COLLECTION, 1990-91, A/W, Paris 48.



<그림 17> Nick Coleman 불가리아풍(형태, 페이스리문양) COLLECTION, 1990-91, A/W, London 15.



〈그림 18〉 Yv. St Laurent 스페인풍(형태, 모자) FASHION Preview, 1990-91 A/W, p.97.



〈그림 19〉 Yv. St Laurent 스코틀랜드풍(형태, 체크치마, 모자) FASHION Preview, 1990-91 A/W, p.66.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각 지역의 민속풍(Ethnic look)은 〈표 2〉와 같이 나타났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에 있어서는 인도, 중국, 일본풍이 주류를 이루었다. 형태에 있어서는 드레이퍼리 형태가 주류였고 중국풍에 있어서는 화려한 원색(빨강, 파랑, 노랑, 초록)을 사용하고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자연색을 사용하고 있다. 장식(ornament)으로는 인도의 사리와 터번, 중국의 Coolie hat, 밀짚모자와 사수, 매듭단추, Bead장식, 일본의 오비와 오비지메 등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있어서는 북미의 인디안풍과 서부개척사 모습을 나타낸 의상과 남미의 페루, 멕시코, 칠레의 민속풍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드레이퍼리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색채는 황색, 자색, 회색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소재는 니트, 면, 등이었다. 장식으로는 모자, 술장식, Bead장식, 금속체인벨트, 땅은 긴머리 등이 이용되었다.

셋째, 아프리카풍으로는 노출형태, 드레이프드 형태로 색채에 있어서는 검정, 회색, 황색, 갈색등이 사용되었고 장식으로는 보석, 구슬장식, bead장식, 동물의 뼈, 싹, 금속장식 등을 이용하였다.

넷째, 유럽풍으로는 러시아의 코사크풍과 불가리아풍, 스페인의 민속풍이 많이 대두되었다. 형태는 드레이퍼리 형태와 튜닉 형태로 색채는 회색, 갈색, 자색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식으로는 코사크, 바브쉬카, 부츠, 술장식과 페이즐리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민속의상이 현대패션에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각 지역의 원초적 삶이 짙게 배어 있고, 과거와 현대의 절충형식을 띠고 있는 민속풍(Ethnic look)에 대한 많은 연구로 제3국의 복식양식을 이해하고 또한 복식디자인에 발전을 가져왔으면 한다.

(표 2) 1989~1994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각 지역의 민족풍 경향

형태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북미	남미	태티티섬	아프리카	리시아	불가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형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드레이퍼리형 혼합형 신체노출	
색상	흰색, 갈색, 자주, 노랑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흰색, 갈색, 주황색, 검정색, 회색, 갈색, 회색, 갈색
소재	부드러운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뻣뻣한 소재	
장신구	스카프, 사리, 술, 머리, 허리띠, 구슬목걸이, 구슬장식 목걸이, 구슬장식, 숄링, 비드 장식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자, 오마, 오마 장식목, 가운, 에담, 단추, 보석, 벨트, 한라웨어터린, 퀴라, 매듭벨트, 수공예 목걸이	
모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꽃, 나비, 잠자리, 표범문양, 기하학, 직모양, 추상문양, 자연문양
디자인어	Loha Lempica, Kenzo Kimijima, Enrico Coveri, Katharine, Hammett, Christian, Lacroix Hiroko, Koshino, Dame, Hechter, Rome, Gigh, Gies, Yuki Mori	Team Paul, Gauthier Karl, Lagerfeld Gies, Matsuda Yuki, Toni Jean Louis, Sherrer Daniel, Hechter Zurca, Betty Jackson, Christian Lacroix, Balenciaga	Issey Miyake, Yuki Toni, Sonia Rykiel, Garcons, Rei Kawakubo, Kenzo Romo, Gigh Picka, Lolita Lempicka	Daniel Hechter, Yuki Toni, Bernard Perris, Sarli Gucci, Valentino St. Laurent, Emanuel ungaro, Hermes Enrico Coveri, Ghost	Guy Paulin, Christian Lacroix, Emanuel ungaro, Hermes Arabella, Pollen, St. Laurent, Ghost Valentino, Enrico Coveri	Karl Lagerfeld, Katharine Hammett, Jin Abe, Arabella, Pollen Hanae Mori	Christian Lacroix, Jean-Louis Cherrer, Claude Montana, Chantier Thomass, Odile Lancoon Yorke & Cole St. Laurent, Kenzo Emanuel, Ungaro Lolita Lempicka, Pierre Balmain, Ozbek Kimijima, Romeo Gigh	Kenzo Sonia Rykiel, Kimijima St. Laurent, Valentino, Angelo Tatiaz	Kenzo Nick, Coleman Hanac, Moon Christian Dior	Hermes Popy, Moreni John Galliano	Sma Rykiel, Patnck Kelly, Christian Dior, St. Laurent, Kenzo Canstain, Lacroix Angelo, Tatiazzi					

【참 고 문 헌】

- 1) 김민자, "Traditional Identity and It's Aesthetic Value in Korean Fashion Design: International Symposium on Culturel Aspects of Home Economics in Asian Countries, 1990, p.194.
- 2) 윤명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이대석사학위논문, 1992, p.16.
- 3)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Gloucester: Smith, 1871), p.527.
- 4) 한상복·이문웅·김광억 공저,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86) p.65.
- 5) Ibid., pp.69~76.
- 6) 김윤희,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p.5.
- 7) 송명진·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 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제8회, p.293.
- 8) 김민자, "2차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Vol. 11, No. 2, 1987. p.70.
- 9) 김윤희·김민자,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Vol.29, No.1, 1991, p.2.
- 10) Jean A. Hamilton, "Dres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Textiles", C. T.R.J., 1987, p.2.
- 11) 이인자, 『복식사회 심리학』(서울: 수학사), p.64.
- 12) 의상디자인 연구회편, 『세계민속의상과 패션』 (서울: 학문사, 1992), p.12.
- 13)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東西の服裝史』, (東京: 衣生活 研究會, 1990), p.177.
- 14) Ibid. p.182.
- 15) 황춘섭, 「민속의상」, (서울: 수학사, 1992), p.11.
- 16) 이은영, 『복식 의장학』(서울: 교문사, 1991), p. 273.
- 17) 장순찬, "Art Nouveau Fashion," 이대석사학위 논문, 1984, p.100.
- 18) 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 디자인 연구", 이대 산미대학원, 1991, p.8.
- 19) Fashion Trend Sense, Ethnic, 패션서울부록, 1990.
- 20) 박명희, "현대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학위 논문, 1991, p.22.
- 21) Hang Mürzel, Vom Lendenschurz Zur Modetracht (Berlin: Widder Verlay, 1925), quoted in 고복남, 한국의복의 유형과 양식(서울: 집문당, 1987), p.15.
- 22) 장순찬 "Art Nouveau Fashion", op. cit., p.100.
- 23) 황춘섭, 「민속의상」, op. cit., p.82.
- 24)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東西の服裝史」 op. cit., p.200.
- 25)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Pre-view, 1989~1994, Paris/London, prêt-à-porter collection.
- 26) Sichuan peoples, 「ETHNIC COSTUMES AND CLOTHING DECORATIONS FROM CHINA (Shanghai: Haifeng Publishing co., 1986), pp.8~9.
- 27) Ruth Turner Willox, Folk Festival Costume of the World(N.Y.: Charles Saribner's Sons., 1965), p. 39.
- 28)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pre-view, 1989~1994, paris/London, prêt-à-porter collection.
- 29) Ginette Sainderichin, 『KENZO』1(동경: 1990), p.34.
- 30) Max Tilke, COSTUME PATTERNS AND DESIGNS(N.Y.: Rizzol 1990), p.39.
- 31)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pre-view, 1989~1994, paris/London, prêt-à-porter collection.
- 32) Max Tilke,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op. cit., pp.113~116.
- 33)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Pre-view, 1989~1994, Paris/London, prêt-à-porter collection.
- 34) 황춘섭, 「민속의상」 op. cit., p.179.

- 35) 의상디자인 연구회편, 「세계 민속의상과 패션」
op. cit., pp.33~34.
- 36) 石山彰, 「世界の服飾 2, 民族衣装」(東京: マル
社, 1990), p.88.
- 37) 라사라편, 「민속의상」(서울: 라미라, 1991), p.
74.
- 38) E.H. 콤브리치, 「서양 미술사」(서울: 열화당,
1986), p.572.
- 39) Mulvagh, Jane,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N.Y.: Viking, 1988), p.294.
- 40) Ibid., p.306.
- 41)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Pre-
view, 1989~1994, Paris/London, 프로레타 프로
테 컬렉션.
- 42) 유태순, 「유럽의 민속의상」(서울: 경춘사, 1992),
p.7.
- 43) 윤명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op.
cit., p.52.
- 44)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Pre-
view, 1989~1994, Paris/London, 프로레타 프로
테 컬렉션.